



아시아 신흥 보험시장의 두자리수 성장, 세계 시장 견인

Contact: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Communications,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3660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61st Floor,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3600
Fax +852 2582 3699
www.swissre.com

2011년 1월 17일, 서울 - 스위스재보험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아시아 보험 업계는 활발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신흥시장이 선진시장 대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아시아 신흥시장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실질 수입보험료는 중국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각각 19.0%와 17.7%의 활발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롭게 나타나는 리스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년 아시아 신흥시장의 GDP 성장률 8% 전망
2011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6%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8%로 전망되며 중국과 인도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8~9%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규모는 중국 세계 2위(현재 7위), 인도 세계 5위(현재 12위)의 경제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위스재보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 클래런스 왕(Clarence Wong)은 “아시아 경제는 활발한 내수 소비 및 투자 수요, 지속적인 자본 유입, 역내 무역 및 투자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 등의 요인들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갑작스런 자본 유출 가능성, 환율 전쟁 및 보호주의 무역 등과 같은 리스크 증가로 인해 저해될 수도 있다”고 클래런스 왕은 덧붙였다.

아시아 신흥시장 수입 보험료의 활발한 증가세

세계 보험 업계는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는 수입보험료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클래런스 왕은 “아시아의 경우, 생명보험 및 개인 손해보험 보종은 지역의 견실한 경제 실적, 소득 증가, 도시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지속적인 증가세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우, 201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거의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에 비해 두 배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1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중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5%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도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아시아 신흥시장은 다른 어느 신흥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생명보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연 8-10%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투자 연계 보험 상품에 대한 건실한 수요와 더불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아시아의 시장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클래런스 윈은 밝혔다.

가처분 가계소득의 증가, 낮은 예금 금리, 투자심리 개선 등의 요인들은 투자 연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지난 몇 년동안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현행 금리는 보험사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익성이 보장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재보험사들은 원수보험 시장의 활발한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원수보험 부문의 자본력 강화 와 M&A -시 유용한 재보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아시아 신흥시장은 손해보험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7.7%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13.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2010년 각각 22%와 13%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각각 15%와 14.1%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관련 보증의 경우 차량 소유자 증가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소득의 증가로 인해 재물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 보험에 대한 수요는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와 무역 관련 업종의 회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클래런스 윈은 “손해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 성장 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인하 압력, 낮은 투자수익률, 보험 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1월 아시아 시장의 계약갱신 결과 전반적인 재보험 부보 역량의 초과로 재보험 가격의 인하 압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의 우박폭풍 및 뉴질랜드의 지진 이후 손실이 발생한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가격 정상화 추세가 나타났다.

향후 도전과제

금리 인상은 보험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자산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용 자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시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청구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언더라이팅이 강화되어야 한다.

클래런스 웡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위험기준자본(RBC) 기준의 실시 강화와 함께 RBC 지급능력 제도가 더욱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규제당국에서는 RBC 제도 준수를 위해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테스트의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며, 이는 보험사의 자본구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자본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보험사들은 체계적인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증가하는 리스크 익스포저를 커버하는 데 충분한 보험요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첨부파일 참조: (1) 실제 GDP 성장률, (2) 생명보험 실질 수입보험료 성장률, (3) 손해보험 실질 수입보험료 성장률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 실질 GDP 성장률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세계 | 1.9% | -1.8% | 3.7% | 3.6% | 3.8% |
| 선진공업국 | 0.3% | -3.3% | 2.5% | 2.3% | 2.5% |
| 신흥시장 | 5.8% | 1.4% | 6.4% | 6.0% | 6.2% |
| - 아시아 신흥시장 | 8.1% | 7.3% | 8.9% | 8.0% | 7.7% |
| 중국 | 9.6% | 9.1% | 9.7% | 8.7% | 8.1% |
| 인도 | 6.7% | 7.4% | 8.4% | 8.6% | 9.0% |
| 인도네시아 | 5.8% | 4.5% | 6.1% | 6.0% | 6.1% |
| 말레이시아 | 4.1% | -1.7% | 7.3% | 4.8% | 5.1% |
| 필리핀 | 3.7% | 0.9% | 7.0% | 4.9% | 4.2% |
| 태국 | 4.8% | -2.3% | 8.1% | 4.6% | 5.0% |
| 베트남 | 6.3% | 5.3% | 7.4% | 7.3% | 6.1% |
| 기타 아시아 시장: | | | | | |
| 호주 | 2.3% | 1.2% | 2.8% | 2.9% | 3.0% |
| 홍콩 | 2.5% | -2.8% | 6.0% | 4.5% | 5.0% |
| 한국 | 2.4% | 0.2% | 5.9% | 4.8% | 4.5% |
| 싱가포르 | 1.5% | -2.0% | 14.5% | 5.0% | 4.3% |
| 대만 | 0.7% | -1.9% | 10.0% | 4.6% | 3.7% |
| 일본 | -1.2% | -5.2% | 2.5% | 1.5% | 1.5% |
| - 중동 | 4.5% | 0.0% | 5.5% | 5.5% | 5.6% |
| - 라틴 아메리카 | 4.2% | -1.9% | 5.2% | 4.4% | 5.0% |
| - 중부 및 동부 유럽 | 4.7% | -5.6% | 2.9% | 3.7% | 4.6% |
| 생명보험 실질 수입보험료 성장률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세계 | -7.3% | -0.2% | 4.3% | 4.1% | 4.3% |
| 선진공업국 | -9.5% | -0.8% | 2.7% | 2.9% | 3.3% |
| 신흥시장 | 13.9% | 3.9% | 15.5% | 10.7% | 9.8% |
| 아시아 전체 | 3.5% | 5.2% | 8.3% | 6.0% | 5.6% |
| - 아시아 신흥시장 | 19.3% | 10.1% | 19.9% | 12.8% | 11.0% |
| 중국 | 40.9% | 12.8% | 25.0% | 12.0% | 10.0% |
| 인도 | 1.7% | 6.3% | 12.7% | 16.0% | 14.0% |
| 인도네시아 | -0.5% | -5.8% | 13.5% | 10.9% | 11.2% |
| 말레이시아 | -2.6% | 11.9% | 10.5% | 6.1% | 6.0% |
| 필리핀 | -31.7% | -2.6% | 9.5% | 6.7% | 6.3% |
| 태국 | 3.7% | 16.0% | 11.7% | 5.7% | 6.0% |
| 베트남 | -14.9% | 0.7% | 12.1% | 16.1% | 13.9% |
| 기타 아시아 시장: | | | | | |
| 호주 | -16.2% | -15.6% | 2.6% | 3.5% | 4.0% |
| 홍콩 | -11.5% | -4.7% | 8.7% | 6.8% | 6.2% |
| 한국 | -6.4% | 1.8% | 2.2% | 3.7% | 3.8% |
| 싱가포르 | -9.8% | -13.0% | 10.3% | 7.9% | 7.1% |
| 대만 | -1.7% | 4.9% | 23.0% | 3.5% | 3.5% |
| 일본 | 1.4% | 4.7% | 0.3% | 1.9% | 2.0% |
| 기타 신흥시장: | | | | | |
| - 중동 | 3.4% | 8.2% | 7.4% | 10.2% | 9.0% |
| - 라틴 아메리카 | 4.8% | 8.6% | 8.5% | 9.0% | 9.0% |
| - 중부 및 동부 유럽 | 19.4% | -18.0% | 8.3% | 5.5% | 7.6% |
| 손해보험 실질 수입보험료 성장률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세계 | -1.4% | 0.2% | 1.3% | 2.8% | 3.7% |
| 선진공업국 | -2.6% | -0.4% | 0.3% | 1.7% | 3.0% |
| 신흥시장 | 7.1% | 3.8% | 7.4% | 8.4% | 7.3% |
| 아시아 전체 | 2.6% | 5.8% | 8.1% | 7.2% | 6.2% |
| - 아시아 신흥시장 | 7.7% | 16.1% | 17.7% | 13.2% | 9.7% |
| 중국 | 10.7% | 23.2% | 22.0% | 15.0% | 10.0% |
| 인도 | 1.6% | 2.6% | 9.0% | 10.4% | 12.1% |
| 인도네시아 | 11.7% | -4.6% | 8.6% | 8.9% | 5.3% |
| 말레이시아 | 3.6% | 5.1% | 6.4% | 5.6% | 5.2% |
| 필리핀 | -0.2% | 1.3% | 4.4% | 8.6% | 7.2% |
| 태국 | -0.3% | 4.4% | 5.1% | 6.1% | 6.1% |
| 베트남 | 2.6% | 9.8% | 13.0% | 14.2% | 12.1% |
| 기타 아시아 시장: | | | | | |
| 호주 | 1.5% | 6.6% | 2.6% | -1.3% | 1.6% |
| 홍콩 | 5.6% | 7.2% | 6.6% | 4.1% | 4.5% |
| 한국 | 6.6% | 12.5% | 8.3% | 7.3% | 6.3% |
| 싱가포르 | 6.3% | -1.0% | 7.9% | 7.1% | 6.0% |
| 대만 | -7.5% | -4.6% | 0.5% | 1.9% | 3.5% |
| 일본 | -4.0% | -1.1% | 1.7% | 1.9% | 1.9% |
| 기타 신흥시장: | | | | | |
| - 중동 | 4.5% | 4.1% | 7.7% | 9.1% | 8.9% |
| - 라틴 아메리카 | 9.2% | 3.8% | 4.0% | 6.6% | 5.1% |
| - 중부 및 동부 유럽 | 7.1% | -5.6% | -0.5% | 4.1% | 5.9% |